

학교폭력의 문제

정원식 | 서울대 명예교수

학교폭력의 문제가 교육의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날에도 청소년 사이에 행동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그러한 갈등과 충돌이 극심하게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 간에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정도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히 학교폭력이라 할 만하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부상되면서 학교기관만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대응책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책이 교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강력한 제재방법을 통하여 학교폭력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교의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사전과 사후의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결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와 학교의 지도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폭력자체의 외형적인 면에서만 다루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문제에는 청소년의 의식구조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여기에서는 오늘의 폭력문제 뒤에 있는 의식의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폭력과 관련된 의식구조에 관한한 적어도 세 가지가 문제시된다. 첫째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의식의

결여상태이며, 둘째는 감정의 통제능력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행동의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왜곡된 의식구조는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의 청소년문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청소년문화의 특징은 오프라인보다도 사이버문화가 지배하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정보의 전파력 때문에 젊은 세대의 생활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어느 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수반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이버세계에서는 무엇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한번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직각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생각 없는 즉흥적인 행동으로 관습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즉흥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통제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와 같은 폭력의 근본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연한 과제는 폭력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왜곡된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우리의 교육에서 인간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내용과 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나 사실적인 현상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에 인간의 존엄성은 특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론되지 못하고 있다. 낯은 표어이지만 한때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널리 통용된 적이 있다.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였으며 기계나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 인간을 해하거나 하는 일이 마땅히 금기시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의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의 폭력적이거나 이탈적인 행동에 있어서 상응할 만한 행동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탈적인 행동은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을 꼭 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자기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활의 과정에서 감정이 치밀어 화를 내게 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감정을 언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통제력의 결핍과 생각 없이 행해지는 즉흥적인 행동은 이탈행동의 근원적인 의식구조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참고 견디는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그러기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1928 황해도 재령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피바디대학에서 교육심리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문교부 장관, 국무총리, 세종연구소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유한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인간의 인지(2010), 인간의 환경(2011),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라(2006) 외 다수가 있다.
